

# 민간경제연구소들의 '93년도 경제전망

**건설경기 활기예상**



大宇, 三星, 現代경제사회연구소 등 국내 민간연구소들이 발표한 「'93년 경제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내년도 우리 경제는 금년과 비슷한 성장률 6%대의 저성장이 계속되고 설비투자 둔화세도 여전할 것으로 보이나 물가와 경상수지 적자는 다소 축소되고 금리수준도 낮아지는 등 경기안정화 추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NP성장률은 금년도의 6.6%(한국은행 전망치)와 같거나 약간 높은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각 연구소가 자체 분석한 경기순환 분석에 의하면 '9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금년의 6.5%에서 6.0% 내외로 낮아질 것이고, 경상수지 적자도 금년의 50억달러에서 30~40억달러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大宇경제연구소는 우리 경제가 지금 어느 경기국면에 와있느냐에 대해 『올 3분기(7~9월)중 경기 최저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93년부터는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설비투자가 극도로 위축돼 있고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반영하는 증시(證市)도 침체상태여서 경기회복 국면이 시작되더라도 과거 경기상승기처럼 회복속도가 강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現代경제사회연구소는 경제안정화 시책의 가장 큰 후유증으로 지적되는 설비투자 위축상태가 '93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년엔 세계경제 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맞춰 국내경기도 회복국면에 접어들지는 불투명하다』는 시각을 보였다.

금년 4.8% (한국은행 전망치)로 예상되는 설비투자 증가율이 내년에는

■ 現代경제사회연구소만이 4.5~5.5%로 다소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三星경제연구소와 大宇경제연구소는 각각 4.4%와 3.2%로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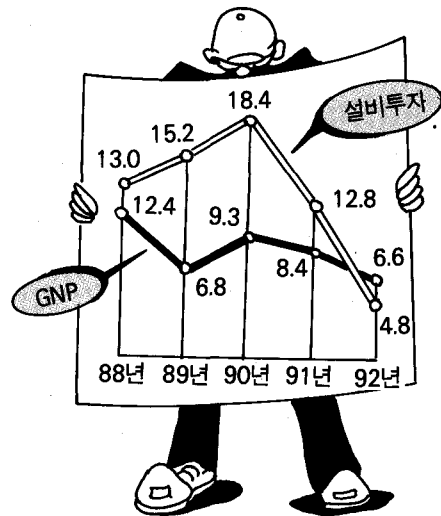
■ 민간경제연구소들의 '93년 경제전망

	92년 전망	93년 전망			
	한국은행	大宇경제연구소	三星경제연구소	現代경제사회연구소	WEFA
설비투자 증가율	4.8	3.2	4.4	4.5~5.5	-
경상수지(억달러)	△58	△39	△38	△15~△30	△58.9
소비자물가 상승률	6.5	6.5	6.0	6.0~6.5	6.5
GNP 성장률	6.6	6.9	6.5	6.6~6.8	7.5

※WEFA : 미국 펜실베니아대 부설 경제예측 전문기관 와튼 연구소

“ 설비투자란 그 나라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설비투자 위축은 매우 우려하는 상황이다. 특히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한 설비투자마저 위축돼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

■ 설비투자 증가율 및 GNP 성장률 추이



건설투자는 금년 0.9%(한국은행 전망치) 증가에 그쳤지만 내년에는 정부의 건축규제 완화조치로 다소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했는데 現代경제사회연구소와 大宇경제연구소는 증가율을 각각 2.0~3.0%, 4.0%로 예상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금년 7.3%(한국은행 전망치)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三星경제연구소가 6.6%, 大宇경제연구소가 6.8%로 더욱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高금리 현상은 많이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연구소측이 제시한 근거는 경제성장률 둔화와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정부의 금리인하 노력이 계속될 것이란 점이다.

現代경제사회연구소는 각종 명목금리가 금년보다 1~2%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며 『회사채 유통수익률의 경우 연평균 14.5~15.5% 수준으로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고, 三星경제연구소도 『올해 16.8% 수준인 연평균 회사채 수익률이 내년에는 14.6%로 2%포인트 이상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확한 경제예측으로 유명한 미국 와튼연구소(WEFA-펜실베니아大 부설)가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93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은 7.7%로 올해 성장률(7.5%)보다 0.2%포인트 높게 예상했다.

또 물가상승률은 8.1%에서 6.5%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경제수지 적자는 금년도 73억달러에서 내년에는 59억달러 규모로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 재해없는 산업사회 1

### 인간생명을 중시하는 기업정신이 필요합니다.

산업재해예방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기업경영활동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 ■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 재해를 당한 본인과 그 가족에게 불행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동료근로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등 손실을 초래, 기업발전을 가로막게 됩니다.
- 최근에는 근로자들의 높아진 안전보건 의식과 더불어 작업환경개선 등이 노사 문제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산업재해는 건전 노사관계를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국가적으로도 재해자의 누증은 사회불우계층을 형성하여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성장발전을 잠식하는 주요요인이 됩니다.
- 따라서 산업재해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기업이나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은 물론 복지사회구현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기업경영활동은 인명손실을 방지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재해예방시설에의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인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